

박산향로를 통해 본 백제금동대향로의 양식적 위치 고찰

김 자 림*

- I. 머리말
- II. 박산향로의 형식
- III. 박산향로의 양식변천
- IV. 백제금동대향로의 양식적 위치
- V. 맺음말

I. 머리말

중국에서는 전국시대 이전부터 향을 사르는 전통이 있었다. 그러나 분향을 위한 '전용 기물'로서 향로가 제작되기 시작한 시점은 漢代 이후로 추정된다.¹ 향로의 발생에 관해서는 서역전래설과 중국자생설이라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서역전래설은 불교가 유입되고 향료가 들어오는 과정에 향로가 전래되었다고 설명하는 반면, 중국자생설은 중국에도 불교 유입 이전부터 분향 의식이 존재했으며 향로의 기형이 전통 기물들과 유사하므로 서역과 관계없이 중국에서 자생할 조건이 충분했다고 본다. 특히 漢代 향로의 주종을 이루는 박산향

* 고려대학교 문화재학협동과정 박사과정.

¹ 陳擎光, 「歷代香具概說」, 『故宮歷代香具圖錄』(臺北: 國立古宮博物院, 1994), pp.32-33.

로의 경우, 박산이 중국에 실재할 가능성을 근거로 들어 향로와 박산향로가 중국 자생의 것임을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 서역으로부터의 영향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표현방식과 정착과정에 중국 측의 기여가 녹아들었음을 논증하는 절충적 입장의 연구들도 있다.²

향로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漢代에 있어 향로의 종류별 제작현황을 살펴보면,³ 豆形이나 鳥形, 鼎形 향로에 비해 박산향로가 다수를 차지하며, 지역적으로도 고루 분포한다. 이러한 한대 박산향로가 승선사상을 함축한 다양한 도상을 통해 일상기물과 구분되는 禮器로서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⁴

이 논문에서는 한대 이후 삼국시대를 지나 남북조시대에 이르기까지 박산향로의 역할 및 위상 변화가 향로 외면에 조각된 문양의 내용 및 문양 간 결합양상, 나아가 크기와 재질 변화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해 보았다. 이는 형태상 박산향로의 계보에 속하는 백제금동대향로의 위치와 기능을 살펴보는 기준으로서도 의미를 가진다. 아래에서는 박산향로 57점을 비롯해 남북조시대 이후 불상과 불비상, 도교상, 소탑 등에 조각된 박산향로 형상

² 서역전래설은 重田定一의 『香爐考』에서 구체화되었으나 불교전래와 함께 향로가 유입되었다는 설명은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향로의 존재가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성립되기 어렵다. 중국자생설은 長廣敏雄, 小杉一雄, 조용중 등이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정록은 박산향로의 외적 요소에 있어서는 서역의 영향을 인정하지만 중국 전통 기물인 豆의 형상을 그대로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역 향로에 보이지 않는 승반이 부대된 점, 산악도가 중국인의 시각으로 재구성된 점에서 절충설을 내세웠다. Michael Sullivan 역시 산악도에 대한 중국의 기여를 근거로 절충적 입장을 취하였다(서정록, 『백제금동대향로』, 학고재, 2001, pp.232-233). 필자 역시 절충설에 근거했다.

³ 전영래, 「향로의 기원과 형식변천」, 『백제연구』 25(충남대백제연구소, 1995), p.156의 분류 재구성.

형식	鳥形 향로	豆形 향로	龍文透彫 향로	三足鼎形 향로	山形 향로
시기	戰國시대 및 前漢 후기	前漢	前漢 중기 ~後漢 초기	前漢 중기 ~後漢 중기	前漢 중기 ~後漢 말기
지역 (수량)	산서(4) 하북(2) 산둥(1) 섬서(2)	광둥(28) 광서(4) 호남(3) 호북(1) 강소(1) 하북(1) 섬서(1)	산서(3) 하남(3) 호남(3) 강소(2) 하북(2) 섬서(2) 강서(1) 광둥(1) 사천(1) 감숙(1) 한반도(1)	하북(3) 강소(2) 섬서(1) 하남(1) 산둥(1) 산서(1)	광둥(12) 호남(6) 강서(4) 호북(1) 강소(5) 절강(1) 하남(10) 하북(7) 산서(4) 산둥(2) 섬서(7) 감숙(1) 영하(2) 내몽고(2) 요령(2) 한반도(4) 사천(1)

⁴ Susan Nell Erickson, "Boshanlu Mountains and Immortality in the Western Han Perio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1989; 박경은, 「博山香爐에 보이는 文樣의 始原과 展開」(홍익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61건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 결과를 토대로 박산향로의 시대별 전개양상을 정리해 보겠다.⁵ 다음으로 박산향로의 양식계보 속에서 부여 능산리 사지 출토 금동대향로가 가지는 양식적 위치와 영향관계를 기능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백제 금동대향로의 조형배경과 제작시기의 추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II. 박산향로의 형식

漢代의 이우는 「薰爐銘」에서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연을 자미성까지 감겨 오르는 신산의 기운에 비유하여 당시에 유행한 상서관념과 천인감응 관념을 보여주었다.⁶ 동진(317-418)의 張敞이 저술한 『晉東宮舊事』에 따르면, 한대의 박산향로는 황실기물이었다. 미양궁 죽절훈로의 명문에서 나타나듯이 內官이나 寺工 등 관영공방에서 제작되어⁷ 여러 왕들이 제후로 봉해져 나갈 때 사여됨으로써 그 규제가 지방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다.⁸ 이는 송대 조희곡이 『洞天清錄』에서 향로에 관한 법도가 박산향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언급한 점과도 상통한다.⁹

남제(479-501)의 유희는 박산향로의 외면에 학을 탄 진왕자가 자색 연기를 타고 비상하는 모습이 묘사되었다고 읊어, 향로 기면의 문양이 단순한 장식을 넘어 향을 사르는 행위와 긴밀히 연관된 동종감응의 대상임을 보여주었다.¹⁰ 양(502-557)의 소통(소명태자 501-531) 역

⁵ 대상 유물 중 절대연대가 확인된 박산향로는 未央宮 소용 목적으로 武帝 建元 5年(기원전 137년)에 주조한 竹節薰爐가 유일하다. 中山王 劉勝 墓 출토 박산향로(기원전 113년)와 劉勝 부인 竇綰 墓 출토 박산향로(기원전 102년)는 각각 묘주의 물년으로 미루어 상대연대가 밝혀졌으며, 이외의 박산향로는 출토무덤의 부장유물을 통해 상대연년 한 결과에 따랐다.

⁶ 李尤, 「薰爐銘」, 『北堂書鈔』 卷135, “上似蓬萊 吐氣委蛇 芳煙布繞 遙沖紫微.”; 劉向, 「薰爐銘」, 『北堂書鈔』 卷135, “嘉此正器 嶄巖若山 上貫太華 承以銅盤 中有蘭綺 朱火青煙.”

⁷ 죽절훈로 노개외면: “內者未央尙臥 金黃塗竹節薰爐一具 并重十斤十二兩 四年內官造 五年十月輸 第初三.” 죽절훈로 대좌하부 외면: “內者未央尙臥 金黃塗竹節薰爐一具 并十一斤 四年寺工造 五年十月輸 第初四.”

이 향로와 동반 출토되는 동기들의 陽信家 명문은 한 무제의 누이인 陽信長公主, 일명 平陽公主의 집안을 나타낸다. 한편 전한 무제 이전에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명문상의 “四年”과 “五年”은 각각 무제 建元 4년(기원전 137년)과 5년으로 추정된다. (員安志, 「談 陽信家 銅器」, 『文物』(1982. 9), pp.18-20; 秦進才, 「陽信家 銅器銘文考訂」, 『文物』(1984. 9), pp.88-89)

⁸ 呂大臨, 『考古圖』 卷10, “按漢朝故事 諸王出閣則賜博山香爐.”

⁹ 趙希鵠, 『洞天清錄』, “惟博山爐 乃漢太子宮所用者 香爐之制 始於此.”

¹⁰ 劉繪, 「詠博山香爐」 『藝文類聚』 卷70, “... 蔽虧千種樹 出沒萬重山 上鏤秦王子 駕鶴乘紫烟 下刻盤龍勢 矯首半銜蓮 ...”

시 「銅博山香爐賦」에서 향연 사이로 승선하는 장면을 묘사하여 이러한 기능을 암시하였다.¹¹ 한대 이후 불사와 승선의 집착에서 벗어나 차츰 현실사회로 눈을 돌리게 된 남조 귀족들에게 박산향로는 예기로서보다 명상과 수도에 수반되는 완상용 기물로서 인식되었을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신과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낮에 향을 피우고 밤에 등을 밝히는 것이었다. 박산향로는 분향의 이와 같은 巫術의 의미에 선계모방이라는 동종주술의 사고가 더해져 소유자의 특권적 신성성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두형 향로의 출현 이래 鼎形이나 鳥形 향로, 山形 향로에 일률적으로 수반되는 승반은 기능적 측면의 고려가 있고 나서야¹² 大海의 상징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산세계와 향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초월적인 의미가 박산향로 속에 녹아들어 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 바닥에 구멍이 나있으므로 승반의 목적은 물을 담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불뿔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 위해 두었다는 기록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준다.¹³

문헌 속의 묘사와 달리 실제 출토되는 박산향로는 하나의 형식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황실기물에서 세간에 이르기까지 크기는 같을지언정 일률적으로 조형되지는 않았음”을 말해주는 동진대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¹⁴ 그 세부형식은 다음 <표 1>과 같이 전개된다.

박산향로는 몸체의 양련판 유무를 기준으로 漢과 남북조 이후로 대분류가 가능하다. 漢의 산형 노개는 능선 또는 봉우리만 표현되는 A형과 구체적인 내부세계를 그린 B형 산형으로 나타났다. 능선과 봉우리만으로 이뤄진 A형 산형이 위진을 거쳐 남북조대로 이어졌고, 북위 중반의 화염문과 북제-주 이후의 화염보주문 노개 C형이 공존했다. 대좌의 경우 한대에 용·거북-새·연화의 상형대와 및 기둥형의 기본 형식이 갖춰졌으며, 위진시기 동안

11 蕭統「銅博山香爐賦」『藝文類聚』卷70, “稟至精之純質 產靈岳之幽深 經般僮之妙旨 運公輸之巧心 有薰帶而巖隱 亦霓裳而升仙 寫嵩山之巖巖 象鄧林之芊眠 …”

12 徐兢『宣和奉使高麗圖經』, “博山爐 本漢器也 海中有山 名博山 形如蓮花 故香爐取象 下有一盆 作山海波濤 魚龍出沒之狀 以○貯湯 薰衣之用 蓋欲其濕氣相著 煙不散耳 …”; 呂大臨『考古圖』卷10, “象海中博山 下有槃貯湯 使潤氣蒸香 以象海之回還 …”

13 『西清古鑑』卷38, “…今按盤底有孔 非可以盛水者 惟云承火地之墜 則得之矣 古圖又云 貯湯使潤氣蒸香 以象海之回環者 更不然也.”

14 張敞「晉東宮舊事」『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卷19, “…象海中博山 下槃貯湯 使潤氣蒸香 以象海之回環 此器世間亦有之 形制大同而不一.”

표 1 박산향로 각 형식의 시기별 전개양상

노개 형식(T)		I			II	
		전한	후한	삼국위진	남북조	수·당
산 (A)	능선	용형대좌A1	거북A2, 연화대좌A3		연화대좌A3	
	봉우리	기동형 대좌A4			기동형대좌A4	
산 + 물상 (B)	구획	용형대좌B1	기동형 대좌B4			
	비구획	용형대좌	거북B2, 기동형 대좌			
화염 (C)	화염				기동형대좌C4	
	화염 보주				연화대좌C3	용, 연화대좌
					기동형 대좌C4	

기동형 대좌가 남아 남북조시기 이후 연화대좌와 함께 가장 보편적인 대좌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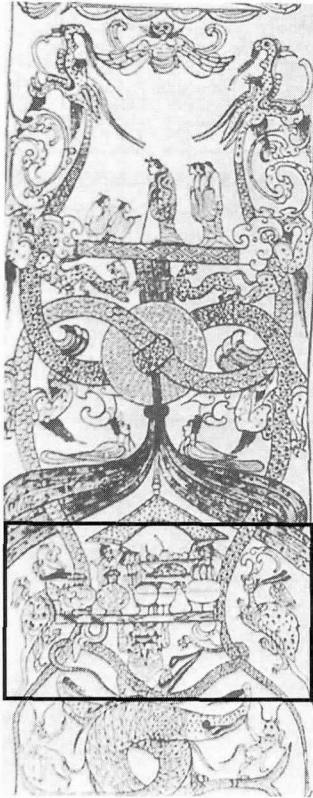
III. 박산향로의 양식변천

1. 漢代의 박산향로

한대의 박산향로는 노개와 대좌의 상하관계를 통해 복합 상징을 표출하고 있다.

산형의 노개는 당시 유행한 신산관념과 승선사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특히 이례적 자연 현상에 통치의 권위와 자질을 투영하던 한의 지배계층은 신산세계의 모방을 통해 지상에 선계를 재현하려 하였고, 이것이 곧 선계 내부를 자세히 도해한 박산향로의 제작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산의 외형만 갖춘 노개(A)가 漢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조형되는 사실과 달리 산악 사이사이에 기금괴수와 산수가 들어간 노개(B)는 한대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산악세계 아래에는 용·거북·연꽃 등 상형대좌가 신산과 대등한 비율로 부각되어 있다. 이처럼 대좌의 굽직하고 다양한 형상은 내세에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으로서 신산의



도 1 마왕퇴 백화도안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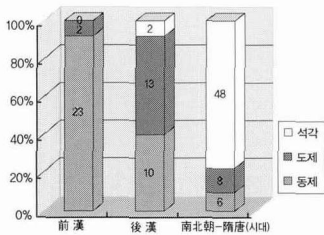


표 2 박산향로의 재질 변화

성격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용(1)은 마왕퇴 1호 묘를 비롯해 한대 부장미술에 빈번히 등장하는 신수로, 죽은 이의 혼이 승천하도록 도와주는 수레의 역할을 맡아왔다. 이에 비해 거북과 새의 결합대좌(2)는 동해의 삼신산을 지탱하는 큰 자라의 신화를 형상한 것으로 보기도 하나, 한편으로 <도 1>의 마왕퇴 1호 묘 출토 백화 중 鯢(거대한 물고기)의 양 옆에서 지하세계를 구성하는 鰲(치효와 거북)에 상응한다. 백화의 주제가 묘주의 승천으로 압축되므로 하단의 치구는 하계를 구성하는 존재로 도해되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박산향로의 거북+새 도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성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후한대에 유가의 저변확대가 이뤄지고 현실인식이 전한대보다 구체화되면서 생사가 이질적이고 대조적인 세계로 구분되기 시작했다.¹⁵ 선계표현은 박산향로 같은 기물 위에서 화상적으로 이동해 죽은 이의 魄이 머무는 세계를 구성하게 되었다. 전한대에 유행한 상형대좌 또한 문양이 사라지고 기둥형태로 처리되었다. 박산향로의 재질 역시 물자와 노동력이 집약적으로 동원되어야 가능한 동제향로에서 도제로 옮겨가는 양상이 <표 2>를 통해 확인된다. 부장용 명기로 제작되어 향공이 생략된 박산향로도 보인다. 도제 박산향로의 물량이 증가하는 현상은 곧 박산향로의 향유계층이 황실 위주에서 호족 중심의 지방사회로 확산되었으며, 그 결과 제작비용의 절감과 손쉬운 조형을 목적으로 하는 기법상의 고안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한대에 유행한 박산향로는 삼국과 위진대를 거쳐 남북

¹⁵ 死者의 魄은 천상으로 올라가고, 魄은 지하로 내려간다는 인식 자체는 유사하다. 그러나 전한대의 지하세계가 현실 연장적 성격을 가졌다면, 후한대에는 상호 단절된 세계로 인식되고 있었음이 진묘문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陝西省 戶縣 출토 陽嘉 二年(133) 曹伯魯鎮墓罐「生死異路 相去萬里」; 출토지 미상의 永壽 二年(156) 成氏鎮墓甕「死生異薄 千秋萬歲 不得復相求索」; 陝西省 西安 출토 嘉平 元年(172) 陳叔敬等鎮墓甕「生人上就陽 死人下歸陰 生人上就高臺 死人深自藏」

한대 박산향로의 산형	남북조시대 박산향로의 산형	(참고) 백제금동대향로의 산형
 <p data-bbox="243 476 388 504">채회도박산로, 후한</p>	 <p data-bbox="546 476 783 504">神龜元年銘 孫寶造像座 정면, 복위</p>	 <p data-bbox="901 476 1112 504">능산리 출토 향로 부분, 백제</p>

도 2 한과 남북조시대 박산향로의 산형 비교

조시대에 불교조상 속으로 수용된다. 이는 기형과 문양에 있어 한대 박산향로의 전통을 계승한 결과로 보인다.¹⁶ <도 2>에서 보듯이 남북조시기에 유행하는 삼산형이 한대에 이미 산악표현의 기본형이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박산향로의 기형과 장식을 서역문화의 영향이 일방적으로 수용된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2. 남북조시대 박산향로

이 시기에 한대 선계인식의 전형을 보여주던 B형식 신산 표현은 사라졌으나, 세부묘사가 없는 A형식 산악 표현이 남아 도교의 신산이자 불교의 수미산으로 인식되었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우주와 天의 구조를 설명하는 중심에 놓여 깨달음과 초월의 단계를 이해하는 원리로서 인용되어왔는데, 수미산이 가지는 우주축으로서의 형태와 의미는 중국인들에게 신산 이미지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¹⁷ 그러나 과연 이 시기 사람들이 수미산을 이상향으로 받아들였는지는 의문이다. 다시 말해 남북조시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가고자 했던 내세의 이미지를 수미산이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북조지역에서는 6세기 전반에 정

¹⁶ 서정록은 삼산문양의 기원을 서역과의 잦은 교류에서 찾고, 광휘를 상징하는 로제트 문양의 차용은 소그드 상인에 의한 조로아스터교의 유행에서 비롯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漢과 南北朝 박산향로 간의 조형적 계승관계를 부정할 견해로 본고와는 차이를 보인(서정록, 『백제금동대향로』(학고재, 2001), pp.241-249).

¹⁷ Erickson은 박산향로가 영원과 불사의 추구라는 우주축 개념을 구체화한 기물로 남북조시대까지 계승되지만, 점차 산악승배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보았다(Susan N. Erickson, 앞의 논문, 1989). 박경은 역시 용과 결합한 박산향로의 신산도상이 우주축과 승선사상을 응축한다고 보았으며, 이 도상이 불교미술에까지 이어져 고대 동양의 세계관을 형성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박경은, 앞의 논문, 1998).

도표현이 시작되었고, 사천성 성도를 중심으로 발견된 조상들에서는 이미 5세기 전반부터 정토와 사바세계가 결합된 초기 정토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⁸ 결국 불교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정착해감에 따라 이상향과 내세의 이미지도 점차 다양하게 분화되었고, 박산향로에 담긴 내세상징은 그 대표성이 약화되었다.¹⁹

박산향로가 가진 이상향의 상징이 약화되는 기미를 화염 및 화염보주문의 등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화염문 및 화염보주문의 시문은 박산향로라는 전래의 기물이 불교의 문법 속에 편입되어 새로이 해석되는 상황을 반영한다. 화염문 박산향로의 실례는 복건성 민후현에서 발견된 도제 박산향로로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북조에서도 북위 太和 20년(496)명 불비상 및 <도 3>의 神龜 3년(520)명 불비상 박산향로 형상을 비롯한 다수의 예가 보인다. 화염은 삼천대천의 불교세계를 가득 메우는 불꽃이면서 동시에 향연이 타오르는 모습을 표시한 이차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화염문은 북위 중기에 등장하다가 사라지고, <도 4>의 남향단상석 굴 박산향로 형상에서 보듯이 북제·북주기에 이르러 화염보주문으로 재차 등장한다.²⁰

북량의 曇無讖이 한역(419)한 『悲華經』에 따르면, 부처의 사리가 화한 유리보주의 불꽃이 천상에게까지 이르러 각종 진보를 뿌릴 때 사람들의 마음이 화열하여 세상에 모든 악이 사라지고 걱정이 찾아온다고 하였다.²¹ 결국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연과 천상으로 타오르는 유리보주의 불꽃이 결합하여 현세의 고통을 없애려는 기복 의도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는 삼국시대부터 남북조시대까지 400년 가까이 호족계 국가들 간의 분립이 지속되고 남북 사이에도 갈등과 전쟁이 극에 달하면서 내세관과 신앙의 흐름이 망자의 고통구제와 후손들

¹⁸ 김혜원, 「중국 초기 정토표현에 대한 고찰: 사천성 성도 발견 조상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17, (미술사연구회, 2003), pp.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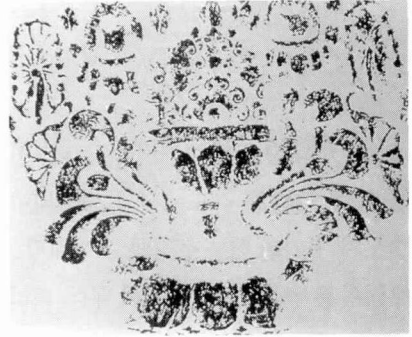
¹⁹ 그러나 신선사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남북조 황실 각각에서 봉래산을 조영하거나 선인관을 짓는 등 건축적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洛陽伽藍記』 卷1 城內, “... 華林園中有大海 卽漢天淵池 ... 世宗在海內作蓬萊山 山上有僊人館 ...”; 『宋書』 卷66 列傳 第26 何尚之, “(元嘉)二十三年 遷尚書右僕射 加散騎常侍 是歲 造玄武湖 上欲於湖中立方丈蓬萊瀛洲三神山 尚之固諫 乃止 ...”(장인성, 「백제의 도교: 궁남지 조성을 중심으로」, 『백제연구』 29, (충남대백제연구소, 1999, p.59 참조)

²⁰ 그 예로 다음과 같은 상이 있다. 북제 天保 8年(557)銘 좌불칠존상비(Museum of Rietberg), 북제 天保 10年(559)銘 劉紹安造像碑(河南博物院), 북제 天統 4年(568)銘 張伏惠造像碑(河南博物院), 북주 天和 3年(568)銘 杜氏老君像(東京藝術大學美術館) 이 외에도 명문이 없는 다수의 불비상이 있다.

²¹ 『悲華經』 卷7, “我之舍利尋沒於地 至金剛際 爾時娑婆世界空無珍寶 我之舍利變爲意相琉璃寶珠 其明焰盛從金剛際 出於世間 上至阿迦尼吒天 雨種種華曼陀羅華 ... 復當化作種種珍寶金銀摩尼眞珠琉璃珂貝璧玉眞寶爲寶馬珊瑚天冠寶飾 如雨而下 一切遍滿娑婆世界. 爾時人民其心和悅 無諸鬪諍飢餓疾病 他方怨賊惡口諸毒 一切消滅皆得寂靜 爾時世界有如是樂 ...”



도 3 神龜 3年(520)銘 불비상 부분, 북위



도 4 남향당산석굴 박산향로 형상, 북제

의 기복으로 변이되고 있던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漢 황실과 제후들이 자신의 권력을 대변하고 죽은 뒤의 승선을 도모하기 위해 현실에 내세를 직접 구현했다면, 남북조시대의 불교와 도교 신자들은 내세에 구원받고 현세에서는 복을 누리하고자 소망의 전달자로서 이 향로를 이용했던 것이다(다음 장의 표 3 참고).

공현 예불도와 각종 불비상에서 북위의 왕과 귀족들이 박산향로를 들고 가거나 불단에 놓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남조의 박산향로는 문헌의 묘사만큼 세밀하게 제작된 예가 보이지 않는다. 남조보다 북조사회에서 박산향로 이미지가 유행하는 현상은 漢化라는 당면 정책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북위 사회는 효문제(467-499) 치세에 한화정책을 통해 근 20년 간 문화적 변영기를 구가하였다. 압도적인 인구와 문화전통을 보유한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 한화는 필연적이었으며,²² 따라서 박산향로를 비롯한 漢 전래의 도상이 다양한 변형과 재해석을 거치며 수용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북주 불상에 보이는 박산향로 역시 기존 박산향로의 기형을 토대로 다양한 변형을 시도한 전혀 새로운 형태인 경우가 많으며, 이는 중앙아시아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서역상인을 통한 문물교류의 영향에 기인할 것이다. 이처럼 중국 박산향로는 불교 도상 속에 편입된 전통기물에서 隋 개황 13년(593)명 금동아미타 불상(Boston Museum 소장) 대좌의 향로와 같이 점차 불교기물로 그 성격을 바꾸어나갔다.

²² 宮崎市定·임중혁·박선희 역, 『중국중세사』(신서원, 1996), pp.217-218.

IV. 백제금동대향로의 양식적 위치

금동대향로에 대해서는 '2003년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특히 그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출토지가 가진 陵寺로서의 조성배경 및 유적과의 밀접성을 전제하고, 도상의 구성이 유사한 무령왕릉 출토 동탁은잔 및 부여 외리 출토 산수문양전과의 양식비교를 통해 7세기 전반 내지 전·중엽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²³ 선학들의 연구에서는 금동대향로에 선각된 운기문을 대부분 능산리에서 동반 출토된 금동거신광배편 및 부소산 동문지 출토 금동광배의 사실적인 당초문 장식과 비교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동일한 형식에 속하는 중국 박산향로의 양식계보 속에서 문양과 기형을 비교함으로써 영향관계와 기능의 차이, 그리고 제작시기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부여 능산리 사지 출토 금동대향로도⁵는 용의 입에서 나온 연화 위에 산악세계가 펼쳐진 특이한 도상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 박산향로의 계보 속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동대향로의 맨 꼭대기에 놓인 봉황과 세 개의 봉우리로 굴곡을 드러낸 산악문, 노신 앙련판과 구연부의 유운문 등 기본적인 요소들은 북위(386-534)와 북제(550-577) 및 梁(502-557) 박산향로 형상들과 관련이 깊다. 산동성 臨淄에서 발견된 북위 정광 6년(525)명 曹望愷造像碑座 정면에는 두 마리의 護法獅子 사이에 박산향로가 놓인 전형적인 공양도가 있고, 우측과 좌측면 각각에는 박산향로를 들고 가는 조망희와 그 부인의 행렬도도⁶가 선각되어 있다. 대좌 정면과 좌우측 세 장면의 박산향로 모두 산형이 세 개의 능선을 이루고, 몸체에 앙련판이 장식되었으며, 노개과 몸체 구연부에 유운문대가 새겨졌다는 점에서 금동대향로와 상통한다. 특히 대좌 좌측의 조망희 부인이 든 박산향로 정상에는 당시 유행한 보주형 장식 대신 봉황이 조각되어 있어 다양한 형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남성 낙양 東關에서 출토된 북위대 신왕 석비좌의 박산향로 형상도⁷은 기형이 백제금동대향로와 가장 가까우며, 산악문마다 향공을 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세 개의 능선과 앙련판, 구연부의 유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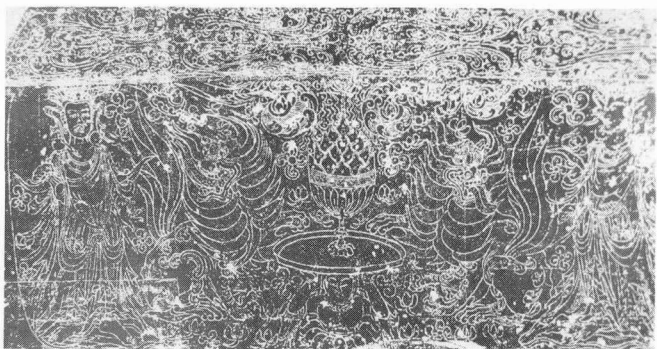
²³ 조용중, 「백제금동대향로에 관한 연구」, 『백제금동대향로』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10주년 기념 연구논문자료집 (국립부여박물관, 2003), pp.126-149; 최병현, 「백제금동대향로」, 같은 책, pp.88-99; 최응천, 「백제 금동용봉향로의 조형과 편년」, 같은 책, pp.102-123.



도5 금동대향로, 높이 61.8cm,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도6 正光 6年(525)銘 조망희조상비좌 부분, 복위, 산동성 임치 출토



도7 신왕석비좌 부분, 복위, 하남성 낙양 동관 출토

대 장식이라는 공통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남조의 奉博山香爐侍女 화상전도⁸에서도 박산향로 위로 겹겹이 솟아난 산봉우리와 정상에 앉은 봉황 장식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산악문 대신 화염보주문으로 노개를 장식하거나 기형 자체를 아예 연화형으로 바꾸는 식의 변형이 많은 북주(557-581) 박산향로와 백제금동대향로 사이에는 영향 관계를 설정하기 어렵다.

한편 박산향로 밑에 놓여 분향 중 튀는 불똥을 받거나 손에 받들고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고안된 승반은²⁴ 험난한 신산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大海의 상징물에서 연화장세계가 펼쳐지는 香水海로 그 의미가 바뀌었다.²⁵ <도9>의 북제 천보 2년(551)명 불비상 대좌부에서 대해를

²⁴ 『西清古鑑』 卷38, “... 今按盤底有孔 非可以盛水者 惟云承火地之墜 則得之矣 古圖又云 貯湯使潤氣蒸香 以象海之回環者 更不然也.”

²⁵ 금동대향로의 조형배경에 있어 불교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고 도교의 득세라는 정치적·사상적 배경을 제작의 제일 조건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조용중, 앞의 글, pp.143-144), 불교의 영향을 전면에서 부각시켜 용-연화-산악으로 구성된 금동대향로의 도상구조를 香水海 가운데 피어난 연화 속에 蓮華藏世界가 펼쳐진다는



도8 봉박산향로시녀 화상전. 도9 天保 2年(551)銘 불비상 부분, 복제
남조, 강소성

표현한 물결 위에 연화가 떠있고 그 위로 산악문 향로가 놓인 구도를 선명히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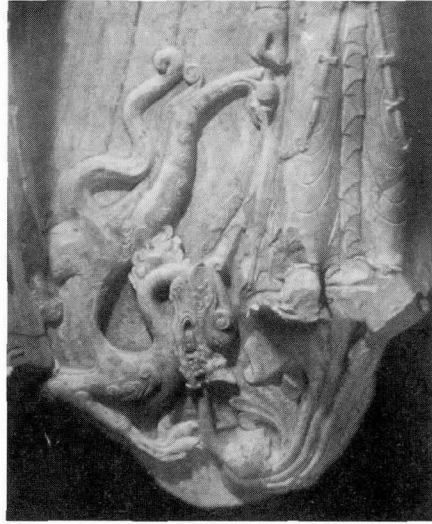
그러나 漢代 사람들이 이상세계를 그대로 구현해 실제 이상향과 감응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과 달리, 남북조시대 발원자와 공양자들에게 있어 기원의 대상은 향로 너머의 신적 존재와 공간에 있었다. 수미산은 정도가 아니라 불교세계의 구조를 설명한 세계관의 도해에 가까웠으며, 따라서 수미산을 상징한 박산향로 역시 기능상 신적 존재와 기원자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에 불과할 뿐 그들이 가고자 염원했던 이상향의 실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漢代 박산향로가 불교도상 속으로 용해되어 불교의 개념적 우주관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데에 기여하기는 했으나,²⁶ 6세기 전기에는 이미 승선을 바라는 장소가 산악을 벗어나 비천이 날고 연꽃이 흩날리며 누각이 반듯한 가운데 불보살이 정좌한 정원의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불비상 내에서 불보살과 박산향로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해 보더라도 한대에 비해 그 위상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엄경』 중심의 불교 세계관에 대입하기도 한다(최병헌, 앞의 글, pp.94-96). 후자의 경우, 향로 몸체의 연꽃잎 하나하나에 배치된 각종 생물들은 천엽 위에 구현된 세계의 상징으로, 향로 노개의 산악세계는 잡류세계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이때 전체적 골격은 연화장세계를 바탕으로 하되 이상세계의 내용은 도교의 신선세계에서 그 이미지를 차용했다고 본다.

²⁶ 박경은, 「박산향로의 승선도상 연구」, 『백제금동대향로』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10주년 기념 연구논문자료집(국립부여박물관, 2003), pp.186-190.



도 10 녹유도박산향로,
높이 31cm, 수



도 11天平 3年(536) 銘邢長振造釋迦像 부분,
전체높이 137.7cm, 동위,
산동성 용흥사지 출토

반면 포수와 화염문(혹은 박산문)을 산악 최하단에 배치하여 당시 북조 박산향로가 구
현하지 않던 내세를 별도로 구획하고, 그 내부에 기금이수와 초목, 인물 등을 도해한 점은
동 시기 박산향로의 양식적 속성을 벗어난 백제금동대향로만의 특징이다. 이는 출토지인 능
사와 관련하여 선왕을 추모하고 그로 인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한 금동대향로의 정치적 제작
목적과 행향기능을 시사한다.²⁷ 결국 불교의식에 따른 순수한 공양행위와 구분되는 왕실 기
념비적 성격이 금동대향로에 담겨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형 상형대좌가 산악을 받친 도상은 5세기 후반 운강 제10굴 전실과 서위대에 조
성된 돈황 249굴 천정 서면에 표현된 수미산도를 통해 설명된다. 동일한 구도가 수·당대 백
자와 녹유도박산향로도 10의 반룡형 대좌로 이어진다. 그러나 한 마리의 용이 연화를 토해내
고 그 위로 산악세계가 펼쳐지는 금동대향로 특유의 도상은 산동성 靑州 龍興寺址 출토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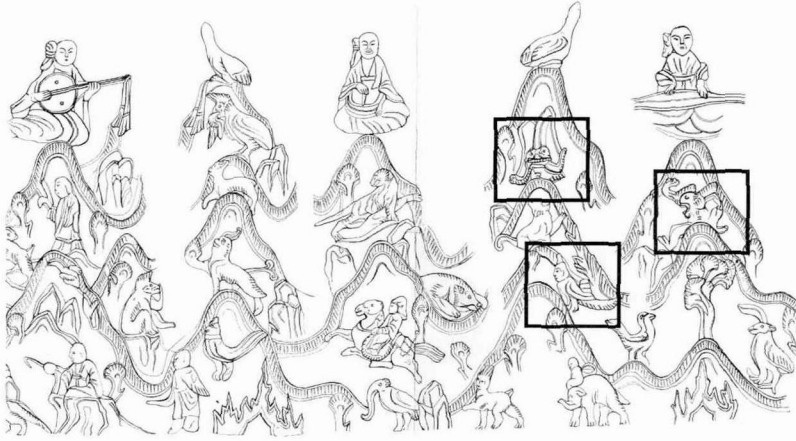
²⁷ 금동대향로의 용도에 대해서는 동요된 왕권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 대내적 체제를 정비하던 위덕왕대(554-597)에 능사를 창건하고 성왕의 추복을 목적으로 제사의식을 집전하면서 사용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김수태, 「백제 위덕왕대 부여 능산리 사원의 창건」, 『백제문화』 27, 공주대백제연구소, 1998, p.42; 김상현, 「백제 위덕왕의 부왕을 위한 追福과 몽전관음」, 『한국고대사연구』 15, 한국고대사학회, 1999, pp.220-221).

표 3 박산향로 분향의 목적과 기능 변화

시기	박산향로 분향의 목적과 기능	관련 문헌
한	<p>내세로서의 신산세계</p> <p>↑</p> <p>현실에 선계구현 (정치적 권위 투영)</p> <p>↑</p> <p>박산향로의 소유자 (혹은 묘주)</p>	<p>李尤, 「薰爐銘」, 『北堂書鈔』卷135, “上似蓬萊吐氣委蛇 芳煙布繞 遙沖紫微.”</p> <p>劉向, 「薰爐銘」, 『北堂書鈔』卷135, “嘉此正器 蔚巖若山 上貫太華 承以銅盤 中有蘭綺 朱火青烟.”</p>
남북조	<p>불교 및 도교의 제신</p> <p>↑</p> <p>망자의 고통구제</p> <p>↓</p> <p>생자의 복락 기원</p> <p>↓</p> <p>造像을 통한 박산향로 공양자</p>	<p>石造佛三尊像, “梁中大同元年(546) 太歲丙寅十一月五日 比丘釋慧影 奉爲亡父亡母 并及七世久遠出家師僧 并及自身 廣及六道田生一切眷屬 咸同斯福.”</p>
백제	<p>백제 왕실의 조상신</p> <p>↑</p> <p>불교예식에 따른 선왕의 제사</p> <p>↓</p> <p>국가의 안정 기원 정치적 권위 확립</p> <p>↓</p> <p>왕실 능사</p>	<p>『三國遺事』卷2 南夫餘 後百濟, “又都中有三山 曰 日山吳山浮山 國家全盛之時 各有神人居其上 飛相往來 朝夕不絕.”</p>

조불상에 빈번히 나타나는 연화를 뺀어내는 용의 도상도¹¹에 가깝다. 금동대향로의 세부도상에 있어서도 산동성 지역과의 관계가 상정된다.²⁸ 정상에 위치한 봉황의 정면향을 남향으로 보았을 때, 동면 상단의 산 위에 뱀 같은 것을 물고 있는 짐승의 정면상도¹²이 주출되어 있다. 주악인물 5명과 포수상을 제외하고 정면상은 이 도상이 유일하며, 동일한 형상이 산동성 沂南 화상석묘 전실 북벽의 上橫額 도¹³에서 확인된다. 양쪽 다 관을 쓴 인면조신과 역동적인 자세의 괴수상이 함께 표현되어 있다. 이상에서 산동성을 기점으로 한 북위-북제 계열

²⁸ 동위·북제시기에 중원지역에서 보기 힘든 특이한 도상이나 양식이 산동성 지역 문화에 두드러진 이유에 대해서는 남조와의 교류 창구로서 이 지역이 지닌 지리적 특성과 그로 인한 문화적 밀접성에 근거를 둔다. 양홍은 벽화의 양식비교뿐 아니라 清河崔氏 일가를 중심으로 북조에 있어 漢人의 이주와 활동 등 인적교류가 미친 영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들 청하최씨 일가의 고향 일부가 산동성에 해당되는 사실을 근거로 산동이 당시 남북 문화교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았다(김리나, 『한국고대불교조각 비교연구』, 문예출판사, 2003, pp.91-92; 楊泓, 「북조만기 묘실벽화의 새로운 발견에 관하여」, 『미술사논단』 5, 한국미술연구소, 1997, pp.237-240).



도 12 능사지 출토 금동대향로 산악 전개도면 부분, 백제



도 13 산동성 기남 화상석묘 전실 북벽 상회액 부분, 후한

문화의 영향이 백제금동대향로의 조형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백제는 위덕왕 이후 남조 陳과 북제·북주 모두에 견사 조공했는데, 북조 諸國과의 교류는 산동지역 문화와의 밀접성으로 미루어 해로를 통해 직접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²⁹ 북

²⁹ 북조와 백제의 관계는 북위와의 3차례 교류 이후 북제와 4차례, 북주와 2차례에 불과해 남조 제 황실과 54차례 교류한 사실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적은 교류 횟수에도 불구하고 북조계통 문화의 징후는 백제 문화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가장 보수적이라 할 묘장문화에 있어 진묘수를 묘실 내부에 배치하는 북조의 장법이 무령왕릉의 石獸에서 확인된다. 남조의 경우 묘실 내부가 아니라 묘 앞의 지상에 거대한 구조물을 세워 북조와 장법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齊東方, 『百濟武寧王墓與南朝梁墓』, 『무령왕릉과 동아시아문화』, 국립부여문화재연구

위가 동서로 분열된 이후 낙양에서 활동하던 많은 승려들이 동위의 수도인 鄴으로 이주해왔으며,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뒤이은 북제의 문선제가 天保年間(550-559) 불교의 융성기를 열었다.³⁰ 위덕왕 14년(567)을 기점으로 위덕왕 17년(570)부터 3년간 해마다 시행된 북제로의 견사 조공은 이러한 천보연간을 지나 황포에 가까운 황실불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이뤄졌다. 이와 같은 불사 중흥기에 북제로 파견된 사신과 수행 장인들은 불비상 속의 박산향로 형상을 다수 접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백제금동대향로의 조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북위-북제 계열 박산향로 기형과의 친연성, 용-연화의 결합으로 도출된 특이한 상형대좌 및 세부 도상에 보이는 산동지역과의 관련성 등은 이와 같은 교류 결과의 일면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금동대향로의 제작은 사신교류 이후인 6세기 후기에서 7세기 초기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는 남조와의 교류를 통해 얻은 한대 박산향로에 관한 다양한 문학적 표현이나 도안이 모델로서 제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중국 박산향로의 시대별 전개양상을 통해 그 상징적 의미와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백제금동대향로가 가지는 양식적 위치와 영향관계를 가늠해 보았다. 또 이를 통해 남북조 박산향로와 구분되는 백제금동대향로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중국에서 漢 황실과 제후왕실의 禮器로 조형된 박산향로는 상서의 발현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내세와 현실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보여주었다. 후한시기의 박산향로는 동제에서 도제로의 재질변화와 함께 선계 표현이 단순화하는데, 이는 현실과 내세가 구분됨에 따라 박산향로에 구현되던 내세 표현이 묘실 내부로 옮겨갔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후 삼국과 오호십육국 난립의 시대를 거치면서 조형 수량이 현저히 줄어들지만 박산향로의 기형은 지속되었다. 이를 양식적 쇠퇴의 징후로 보기도 하나, 조형 초기부터 복잡한 도상구조의 박산향로와 공존했던 점으로 미루어 후원자나 장인의 차이가 가져온 결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남북조시대에 이르러 신상조각을 장엄하는 공양물이자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범구

소 · 국립공주박물관, 2001, p.102; 박한제, 『강남의 낭만과 비극: 동진 · 남조시대』, 사계절, 2003, pp.203-204) 북조 문물이 백제 문화에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된다.

³⁰ 鎌田茂雄 · 장휘옥 역, 『중국불교사 3』(장승, 1996), pp.388-403.

로 재등장한 박산향로는 사후의 고통으로부터 구제되기 바라는 인간의 기원을 신에게 올려 보내는 매개물이 되었다. 동시에 하계에 남은 중생에게까지 공양의 효험이 미치기를 바라는 염원도 담겨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선인이 되기를 바라기보다 도솔천이나 아미타정도에 왕생하여 복락을 누리고자 하는 불교적 내세관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기형과 문양에 새로운 요소가 도입되어 연화문 장식이 대좌와 몸체 곳곳에 배치되고, 화염과 화염보주가 신산세계를 대체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 같은 기형과 장식, 분향목적의 변화에는 漢 文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독자적으로 해석한 북위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불교의 지속적 영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중국 박산향로의 흐름 속에서 백제금동대향로는 기형상 북위-북제 계열 박산향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변형이 많은 북주의 향로와는 무관했다. 구체적으로 대좌 도상과 산악세계의 표현이 산동성 용흥사지 불상 대좌 및 화상석 도안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 산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백제와 북조 사이의 문물교류가 이 향로의 제작배경이 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포수문과 화염문(혹은 박산문)으로 내세를 구획하고 그 안에 이상향으로서의 내세를 도해한 점은 동시기 중국 박산향로와 다른 부분으로 오히려 한대 박산향로의 정치적 성격과 맞닿아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금동대향로의 제작과 분향 목적이 왕실 주도로 선왕을 추모하고 그 결과 정치적 안정과 권위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불교적인 공양구의 성격을 넘어 왕실의 기념비적 기물로서 제작되었던 것이다. 결국 금동대향로의 제작은 백제와 북제 사이의 사신교류가 이뤄지고, 아울러 남조와의 교류를 통해 한대 박산향로에 관한 다양한 문학적 표현이나 도안이 모델로서 제시된 6세기 후기에서 7세기 초기 정도에 이뤄졌다고 생각된다.

덧붙여 원료의 지질학적 기원이 그 원료 내 화학성분의 함량분포를 차별화한다고 전제하는 산지추정 방법론에 의거해 금동대향로의 주조조직 일부를 분석한 결과, 주 성분인 구리와 주석 함금(85:15)이 중국 북부산 영역에 속한다고 드러난 바 있다.³¹ 동반 출토된 다른 금동유물 시료에 대한 비교분석이 없어 속단하기 어려우나 중국 북부로부터 주요 재질의 수입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아닌가 한다. 추후에 남북조 박산향로의 실물이 발굴된다면 제작기법의 비교뿐 아니라 재질의 원산지 추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³¹ 강형태·유혜선·권혁남,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금동대향로의 과학분석」, 『능사』(국립부여박물관·부여군, 2000), pp.211-230.

* 주제어(key words) — 박산향로(Boshan Xianglu), 백제금동대향로(Baekje Incense Burner), 양식변천(Transition of a Style), 산동지역(Shandong Area)

■ 투고일 2005년 11월 7일 | 심사일 2006년 1월 15일 | 심사완료일 2006년 2월 10일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중국 박산향로의 시대별 전개양상을 통해 그 상징적 의미와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백제금동대향로가 가지는 양식적 위치와 영향관계를 가늠해 보았다. 이를 통해 백제금동대향로가 제작된 시기를 추정하고, 남북조 박산향로와 구분되는 특징을 제시하였다.

중국에서 漢 황실과 제후왕실의 禮器로 조형된 박산향로는 용과 신산, 거북과 신산, 연화와 신산이라는 도상구조를 통해 내세를 형상화했다. 이는 당시의 내세관과 함께 내세와 현실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보여준다. 후한시기에 만들어진 박산향로는 동제보다 도제가 많으며, 선계 표현이 이전보다 단순화한다. 이는 묘실 내부를 장식하는 화상석이 증가함에 따라 박산향로에 구현되던 내세관이 분묘 내부로 옮겨갔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승과 사후를 별개로 구분하는 후한시기의 내세인식은 현실과 내세가 동일한 시공에 존재할 수 있다고 믿은 전한시기의 내세인식과 분명히 다르며, 이는 신산과 대좌도상의 연결구조가 사라지고 신산표현만이 중시되는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이후 삼국과 오호십육국 난립의 시대를 거치면서 조형 수량이 현저히 줄어들지만 박산향로의 기형은 지속적으로 조형되었다. 이를 양식적 쇠퇴의 징후로 보기도 하지만, 이처럼 간략한 형식은 조형 초기부터 복잡한 도상구조의 박산향로와 공존하고 있었으므로 후원자나 장인의 차이가 가져온 결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남북조시대에 이르러 신상조각을 장엄하는 공양물이자 行像과 같은 대규모 종교의식에 사용된 범구로 재등장한 박산향로는 불교와 도교 조상 속에 편입되어 사후의 고통으로부터 구제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기원을 신에게 전달하는 매개물이 되었다. 동시에 하계에 남은 중생에게까지 그 효험이 미치기를 바라는 쌍방향의 목적이 담겨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내세에 이르러자 하는 지향점이 신산세계에서 도술천이나 아미타정토로 옮겨갔으며, 수미산은 단지 불교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공간으로 인식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기형과 문양에 새로운 요소가 도입되어 연화문 장식이 대좌와 몸체 곳곳에 배치되었다. 북위 중기에는 화염이, 북제-북주시기에는 화염보주가 신산세계를 대체하는 경향이 보이며, 기형 자체가 연화문처럼 변형되는 모습도 보인다. 이 같은 기형과 장식, 분향목적의 변화에는 漢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독자적으로 해석한 북위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불교의 지속적 영향이 관여했을 것이다.

백제금동대향로는 북위-북제 계열 박산향로와 기형 및 장식에서 친연성을 보인다. 용과 연화의 결합으로 이뤄진 대좌형식은 산동성 용흥사지 출토 동위-북제시기 불상의 대좌도상과, 신산세계를 구성하는 세부도상은 산둥지역의 화상석 도안과 연결된다. 이는 산둥지역을 중심으로 한 백제

와 북조 사이의 문물교류가 이 향로의 제작배경이 되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포수문과 화염문으로 내세를 구획하고 그 안에 내세를 도해한 점은 동시기 중국 박산향로와 다른 부분으로 오히려 한대 박산향로의 종교적·정치적 성격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금동대향로의 제작과 분향 목적이 왕실 주도로 선왕을 추모하고 그 결과 정치적 안정과 권위를 확립하려는 데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동시대 중국 박산향로가 불교적인 공양구로 기능한 것과 달리 왕실의 기념비적 기물로써 제작되었던 것이다. 결국 금동대향로의 제작은 백제와 북제 사이의 사신교류가 이뤄지고, 아울러 남조와의 교류를 통해 얻은 한대 박산향로에 관한 다양한 문학적 표현이나 도안이 모델로서 제시된 6세기 후기에서 7세기 초기 정도에 이뤄졌다고 생각된다.

ABSTRACT

A Study on the Style of Baekje Incense Burner in the Viewpoint of Boshan Xianglu

Kim Jarim

The type of Baekje incense burner (百濟金銅大香爐) belongs to Boshan xianglu (博山香爐) which has its origin in Han Dynasty (漢). According to the comparison Baekje incense burner with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Boshanlu, the purpose and the function of burning incense with this burner included original as well as contemporary meaning. On the other hand, the icons were closely connected with contemporary Northern Qi (北齊)'s attributions, especially Shandong (山東) area.¹⁾ In result, it is presumed that Baekje incense burner was produced during the late 6th-early 7th century.

Boshan xianglu as ritual utensils of Western Han's royal house-hold indicated their idea of the afterlife and the universe through the sacred mountain images supported by dragons, turtles and lotuses. The combination between the sacred mountain and the supporters presented no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world and the next but also the way that the world is maintained. In this period, Boshanlu represented the xiangrui (祥瑞) which meant the political authority of the Emperor's rule. In Eastern Han period, pottery based Boshan xianglu became more popular than bronze based one. However, the habitants on the sacred mountain lid tend to move on the engraved stones which constituted the interior of the tomb. This means the understanding on the death changed, that is, life beyond the grave was perfectly divided from this life.

Boshan xianglu was also produced in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and the next era of division. In the period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Boshanlu functioned as offering

utensils to Buddha or Laojun (老君). Through incense burning, the patrons to Buddhist or Daoist sculptures believed that they could reach the Pure Land (淨土) or Tusita (兜率天) beyond Sumeru (須彌山) after their death. As a result of this, they also thought that they could have God's mercy before their death. At this point of time, a sacred mountain Sumeru indicated not the ideal land but the part of Buddhist world view. It also appeared new elements in the icons, such as a lotus, flames, flaming jewels on Boshan xianglu. The patrons must have prayed for God put their wishes into the flames. These variations on the style and the form had been caused by the political policies since Northern Wei (北魏) promoted Han culture and Buddhism as a foreign religion.

The form of Baekje incense burner is similar to those of Northern Wei and Qi's. Especially the icon on its stem and body, which consists of dragon and lotus, is connected to pedestal icons on the Eastern Wei (東魏) and Northern Qi's Buddhist sculptures excavated to the monastery of Longxing (龍興寺址) in Shandong Province. On the other hand, some habitants on the mountain lid resembles the burial figures of Eastern Han. The purpose and the function also includes Han's sorcerous and political meaning as well as contemporary mediate role.

Under the reign of King Wideok (威德王), Baekje sent envoys to Northern Qi in the year 567 and 570-572 A.D. It is presumed that they were inspired by flourished Buddhist icons on the sculptures, and Shandong area linked Baekje with Northern Qi. While the literary records and illustrations of the Southern Dynasties which described the beauty and the originality of Han's Boshan xianglu would have had influence on the planning Baekje incense burner. In conclusion, the external form of Baekje incense burner was modelled after Northern Wei and Qi's Boshanlu. However its political and symbolic function was influenced by Han's tradition. Therefore Baekje incense burner must have been made during the late 6th-early 7th century with their own ideas. This opinion needs to be complemented with the progress of the excavations on the cultural states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in the next studies.